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maum

자기 인가 받아야 돌아닌 도리 터득

15면에서 계속

전의 도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래면목 불성의 자리인데 그 불성을 에너지라고 비유한다면 그것이 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믿고 타의의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불성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로 하려니가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전체가 같이 돌아가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없는 불성, 전체 불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전 바로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나온자리, 전체가 나온 자리가 다 불성 자체라, 그 진여본체 자리에서 내 믿음을 불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걸 이름해서 '주인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형성시켰고 이날까

되면 고통도 없고 아주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회동하나 세우고 거기가 다 놓아라 했는데... 길잡이로 말입니다. 처음부터 배워나갈려면 그래서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이건 이치에 어긋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싸고 있는 너의 본래 면목, 이걸 주인공으로 알아라, 그 안엔 부처도 있고 약사도 있고 지장도 있다. 그 속에서 의사가 꺼내 쓸 수 있고 멸종도 꺼내 쓸 수 있다. 그러니 믿고 거기서 모든 걸 한다고 물고 가다보면 의정도 생기고 생자빠기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가 자기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보자, 따라가보자

“제 애비 자리 몰라 고아로 살듯 불성자리 모르고 안믿기 때문에 방황하는 딱한 일 벌여집니다”

지 나를 끌고 왔고 또 끌고 갈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맡기면 그것이 곧 믿음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공에서 나왔으니 공으로 사라져서 허망하다 하지만 그 허망한 것이 바로 꿈이면서 실재라, 이 두 여건을 한데 합쳐서 누가 해왔다는 것인데 처음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야 내가 나를 안고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더불어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잘 아는 걸로 돼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안다는 게 가로막아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자면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몰록 주인공에다 일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서 또 늘 한탄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걸 믿고 살아갈 것인지? 이 각박한 세상에 어떤 걸 근본으로 세워놓고 다니시는지? 그게 이론이나 사상으로 볼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살리하는 것과 마음공부가 별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한군데로 들고 납니다. 그러니 무조건 믿고 놓았다가 내 살림이 어떻게 되게 아닐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잘 되는 것 못되는 것을 몰록 놓고 가야 합니다.

어는 누구라고 부자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잘 하고 잘 살고 싶겠지요.

하지만 본처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 애비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고아로 살듯이 이 전체 우주를 싸고 있는 불성 자리를 모르고 또 가르쳐 주어도 안 믿기 때문에 애비는 자식을 모르고 자식은 애비를 모르는 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길을 모르니까 이리 가면 좋을까 저리 가면 좋을까 하고 자연히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이쿠, 또 빠졌구나, 이걸 어찌지' 울고 불고 탄식하고... 그러나 장님이나 다름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 애비를 자기가 찾아야 한다. 귀가 뚫리고 눈이 뚫려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애비는 장자리, 전체 우주를 싸고 있고 과거 미래 현재를 싸고 있는 일체 불성이고 에너지가 총만하니 무한 능력이 있느니라, 장자리는 말이지요.

가톨릭에서 성부, 성자라고 하는데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부, 말하자면 애비는 능력이 있다 뿐이지 자식이 운전하기에 달려 있으니 무한에너지를 쓰고 안쓰고는 성자에게 달려있느니라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애비를 모른다면 에너지가 어긋나오는 줄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그저 조금씩 얻어서, 빌어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려나갈 감질이 나고 늘 불충분하고 모자라게 되고 안되는게 많아요. 또 갖춰져 있느니라 하고 아무리 말을 채워도 스스로 애비없는 고아인 줄로만 가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랬는데도 뭔가 잘 안됐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거기서 다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릴 때는 '그래도 주인공을 믿는다. 나를 이리로 인도한 것이니까 그대로 믿는다'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몰록 놓지 않고는 의정도 낼 수 없고 의정이 없으면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말이나 생각나는거나 전부 놓아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믿고 놓는 것을 첫번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다가 놓아 버릴 데가 없는데 어디다 놓느냐고 합니다. 네 본래면목 주인공에다 놓아라, 네 주장자 에다 놓아라 이러는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놓아 버리고 일임해 버리면 모든 과거의 애고, 유전성 업보성이 몰록 쉬게 됩니다. 쉬게 되면 앞으로 가질 것도 없고 짊어질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새 소리로 듣고 몰소리도 듣고 짐승 소리 벌레 소리도 듣고 사람 소리도 들죠. 비로소 사람 소리 풀 벌레 소리를 듣게 되니 눈도 천이요 귀도 천이요 손도 천이라, 모두 다둑 거러 주리라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이 어디있나 했더니 바로 내 본래면목에서 나오는 것이로구

나, 이 본래면목이라는게 무한의 길을 서슴없이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꿈꾸는 실체가 있습니까

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가보지 못했던 곳, 해보지 못했던 일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이 선명한 걸 보면 이 육체는 가상이고 따로 진상이라는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평소애 내가 다녀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선명하게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살던 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자기 이전을 모르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시에 자기 모습을 가지고 다니지만 실은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곳을 다니는 것 같아도 잠재의 식서에는 낯선 곳이 아닌 것이죠. 꿈이다 생시다 하지만 지금 모습이나 꿈에 본 모습이나 다 자기모습이요 틀이 아닙니다.



그림 · 최주현

극락이 범천에 있다는데...

불교를 믿는다는 분들께 불교를 왜 믿느냐고 하니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마음 안에 극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물기를 범천세계 어디쯤에 극락이 있다는 데 거기가 어디냐고 했습니다. 열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 말씀 고대합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지요. 내 자신을 모르고 남에게 어떻

이 세상 사람치고 불교와 어떻게 동떨어져서 산다고 하겠습니까?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教)는 우리가 생활하며 돌아가는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그대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다고 따로 따로라고 생각을 합니까? 불교는 어디에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저 태양이 뜬구멍이라고 비추지 않고 아니라고 비추고 합니까? 단지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태양 빛이 들어가지

질 않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행을 하고 회향하고, 행을 하고 회향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회향이 따로 있었습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지켜간다면 그것이 믿음이며 회향이 아니겠습니까?

몰록 놓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마저 맡겨버리세요. 앞에서 질문하신 분들과 비슷한 경우니 나의 대답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열 아이가 자폐증까지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병치레를 자주 하지만 병원에 가본 적은 몇 번 안됩니다. 공부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관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살배기가 근래에 들어서 태열 때문에 온몸이 성치를 앓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란 불가능하고 다만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초기 자폐증세가 보인다기도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마음 주인공 속에는 지장도 있고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진실로 믿고 맡긴다면 과거의 유전성, 업보성도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완치란 불가능하다고 한 모양인데 가능하고 안하고는 내 믿는 마음에 있지 그들의 말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사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보조자입니다. 주인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겠습니까? 관하는데 잘 안된다면 생각까지도 몰록 놓고 맡겨야 합니다.

놓는데는 무조건이라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뜻

부처님 법을 따라 배우는 학인으로서 조금 당황스럽고 불안스러움 점이 무엇이나 하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말할 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원가요?

우리가 성불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할 때 저기 금강산이 있으니까 금강산월 간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듯이 '성불은 있다', '성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해주어 따라갈게 아니겠습니까?

여지껏 배우고 공부했다고 하니 까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물고 대답하고 하는게 생각하기 이전

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침반을 똑바로 두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게 공부도 여여합이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처럼 딱 부러지게 말하라고 하는 분들께 부정을 거쳐 긍정으로 나오게, 말하자면 실상을 바로 보게 할 요량으로 내리친 것인데 제대로 알아 듣는다면 부정이다 긍정이다 할 것도 없지요. 그냥 몰록 놓아 버려라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몰록 놓고 길을 걸어 갈 수 있으면 그냥 여여하고 여여하면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불이다 견성이다 부처다 하는 게 다 이름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보고 있느냐 없느냐 말하라고 하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을테니 그건 날더러 물어

“나를 형성시켰고 이날까지 끌어왔고 또 끌고갈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맡기면 그것이 곧 믿음이죠”

볼게 없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오'하고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벌어진 것도 알았고 우주도 알았고 종교가 있다는 걸 알았고 도니, 성불이냐를 알았지 누가 알려준다고 아는가.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해서 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것이 유휴법만이라는, 말하자면 50%밖에 안되는 걸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게 되는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50%가 특감이었다. 그러니 이 교차로에서 양쪽을 다 거머쥐고 알아야 할 게 아니라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휴법으로만 보면 있다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실재가 실재가 그렇지만 단 말입니다. 현대 바로 내가 그 산 증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할나할나 나무며 지금 살고 있는 게 증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색인 것을 이름해서 '주인공'이라 했고,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말고 주인공에다 몰록 놓아 버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것도 거기가 감사하고 내는 것 몰록 놓고 가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차로에서 유·무가 상통하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이건 부정과 긍정을 다 포섭한 평등공법이라 할 수 있겠지요.

'놓는' 준비가 필요한지요

스님께서는 놓으라고 하십니다. 놓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을 건너 배를 버릴 수 있지 건너기 전에 어떻게 몰록 놓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놓으려면 놓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을 건너야 배를 버린다? 그건 이론이요, 합일되는 건 나중이구.

그래서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기에 내가 성불자리를 주인공이라고 세워 놔둘 때는 일체를,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너, 건너가는 것도 너, 오는 것도 너, 가는 것도 너, 당하는 것도 너, 후려치는 것도 너, 밥 먹는 것도 너라고 돌아 놓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게 하든 오게 하든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고 놓아 버렸을 때 비로소 소생을 하지요. 그게 바로 탄생입니까. 그런데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자기가 생긴 자리가 놓는 자리인데 말이예요. 그래서 남이 준 화두보다 제 화두가 진짜 화두요, 내 의단이 진짜 의단인 것이지요.

진실로 믿고 맡길 때 유전성·업보성 다 녹아

지옥·천당 따로 없어...심신 편하면 거기가 극락

게 대답을 해줄 수 있었습니까? 범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이 세상에 범천도 있으며 천당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가만히 보세요. 잘못을 저질러서 붙잡혀 가질 않나,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의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질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서 마음 편하고 몸 편하니 거기가 천당이고 극락이요. 어디 극락 지옥이 따로이 존재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교회 친구 포교하고 싶어요

제 친구가 지병 때문에 오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다니는데, 몸이 아프니까 갈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친구보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시니 밖에서 찾지 말고 기도를 하더라도 안으로 하라고 일러 줍니다. 하지만 제 친구를 적극적으로 인도해서 부처님 말씀을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못할 뿐입니다. 그와같이 이 마음이 내면세계로 향해 한마음 일으켜서 이끌고 다스리는 마음이라면 몸도 좋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친구를 불교로 이끌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세요.

풀 한포기도 불교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다고 할 게 없지요. 그렇게 마음을 쫓게 써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 쫓게 쓰면 고가 따르고 넓게 쓰면 여여하지요.

관음보살처럼 회향을...

스님, 저는 어려서부터 장차 관세음보살님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 주는 회향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염불기도의 습이 붙어 있습니다. 습이 깊어지니 몰록 놓이

성품 자리에서 나오 드는 것이니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죠. 왜냐하면 그거야 있다고 하면 없는데 없다고 하고 하면 있는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있다고 해도 안되고 없다고 해도 안됩니다. 성불도 이름입니다. 성불이 있느냐 없느냐 하시는데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죠.

우리가 24시간 살아 나가는데도 수없이 변하고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고 돌아가는 데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것이며 어느 순간의 성품을 내 성품이라고 하겠습니까?

성불이 있느냐 없느냐, 유냐 무냐 하고 따지시기 이전에 따지는 그 나는 누구이며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길입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 배운다고 하시는데 어느때 부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구차하게 따지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길이다. 이 길로 바르게 걸으면 너희도 알게 된다고 하